

이재명 '중도 보수론' 파장... 비명계·국민의힘 '맹공'



“민생 경제 살립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채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내 비명계 반발 잇따라...국힘 “작통 보수” 반격 친명계 “DJ·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도우파·보수 지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발언으로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친명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중도우파·보수를 지향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작통 보수”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여야는 20일 전날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격론을 이어갔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며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당을 이끌고 지지해 온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도 입장문을 내고 “유승민

이나 안철수하고 통합하면 딱 맞겠다”며 “중도층을 확보하겠다며 어떤 토론도 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당의 비민주성과 사당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는 반격에 나섰다. 친명계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중도우파·보수를 지향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대통령의 TV 토론회 내용을 보도한 신문 지면을 울리는 등 적극 대응했다.

친명계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 우파’를 언급했다”며 당시의 김 전 대통령 발언을 담은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면서 비명계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3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중도 우파”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이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하셨지만, 진보적 가치를 포기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책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근거로 제시됐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한 신문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진보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정체성으로 보면 보수정당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해당 기사의 제목은 ‘우리 당은 보수다’라고 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논란 자체를 평가절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보수인가, 아닌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도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평가할 일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하는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 개혁 등은 모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보수정당으로서 강력히 추진해 온 정책들”이라며 “여당 정책을 배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중도 보수 우파를 말아야 한다며 우클릭 행보를 표방하는 이 대표의 행보는 시장 경제라는 말을 쓴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중도 보수 우파로의 위장전입”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얼굴을 바꾸며 진행하는 연극인 중국의 ‘변검’을 언급하며 “제1당이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변검 놀이를 하면 국민이 그 말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尹 탄핵 인용 대비 ‘플랜B’ 필요”

국회서 세미나...“탄핵 반대” 이미지 바꿔 중도층 공략 나서야

국민의힘이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리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당의 ‘탄핵 반대’ 이미지를 바꿔 중도층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신을 명지대 교수는 이날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 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을 때를 가정한 ‘플랜A’와 함께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후에 대선 이 있다”며 “두 달 동안 탄핵에 반대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미지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지금 ‘중도로 가겠다’, ‘우클릭하겠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고) ‘진짜 중도·보수 정당이 됐네’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미지는 시간 축적의 결과물”이라며 “국민의힘도 (탄핵 인용 후) 대선 준비를 하며 이미지를 바꾸겠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미지를 변신해야 하는 이유는 중도층 이탈 우려 때문”이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60% 가까이 비율로 나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은 세상이 쪼개져도 국민의힘을 찍는다”며 “어떻게 하면 중도층으로부터 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안도걸 “광주 수출·소비 침체에 추경 시급”

광주시의 수출·소비가 다른 광역 시·도보다 부진해 지역경제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2024년 주요 지역경제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소비와 수출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소매 판매는 전국 평균(-2.2%)보다 큰 폭인 -2.5%였다. 2022년 -2.4%였다가 2023년에는 -0.3%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지난해는 다시 -2.5%를 기록하며 소비 침체 심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특히 광주 수출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은 8.1%를 기록한 반면 광주는 -12.2%로

대구(-19.4%)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광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광주는 산업 구조상 건설업, 소매업 등 내수 산업 비중이 커 전국적인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며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비 촉진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주철현 “정치망어업, 조업규제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물고기 폐기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등 전남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전남·전북·충남 등 전국 산지위판장에서 유탄 폐기된 물고기는 모두 6000t에 육박하고, 특히 대표 산지인 전남에서만 전체 폐기량의 88%에 달하는 5296t이 폐기되며 김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해수부가 김 수출 증대 등에 따라 추구장 3800개에 달하는 2700ha 규모의 신규 물김 양식장을 늘려 놓고도, 정작 이를 처리할 마른 김 가공시설이 부족해 생산량 증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며 “가공시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들이 철저히 검토되고,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치망어업이 면허어업인 만큼, 허가어업과 차이를 고려해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며 “어업 유형에 무관한 평년 수익액의 3년분 지급이 아닌, 현행법상 면허어업 피해보상 기준이 평년 수익액의 8.33년으로 명시된 만큼 어업현실에 맞는 폐업지원금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